

개화기 한일 양국어 학습서의 특징 연구*

-문법 관련 기술 양상을 중심으로-

윤영민**

marchen527@gmail.com

Contents

- I. 서론
- II. 선행연구
- III. 학습서의 고찰
- IV. 맺음말

I. 서론

본 논문은 개화기¹⁾초 한국인과 일본인에 의해 저술된 한일 양국어 학습서를 대상으로 그 편제와 구성, 내용을 분석하고 특히 문법과 관련된 항목의 기술 양상을 중심으로 초기 한일어 학습서의 특징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개화기는 각각 한국어 문법사와 일본어 문법사에서 ‘여명기’와 ‘성립기’²⁾, ‘摸索期’와 ‘体系的文語文法確立期’ 및 ‘今文文法期’³⁾까지를 아우르는 급변기로 한국어⁴⁾와 일본어의 현대 문법 기조 성립과 완성에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832년 Ch. Gützlaff의 *Remarks on the Corean Language*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재원(교육인적 자원부 학술연구조성 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61-A00027).23)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HK연구교수24)

1) 본 연구는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부터 1910년 한일합방까지를 개화기로 본다.

2) 김민수 「1세기 반에 걸친 韓國文法研究史」, 『歷代韓國文法大系』 제2판 별책, 도서출판 박이정, 2008.4, pp.8-11.

3) 木之下正雄·上村孝二·古田東朔, 『國語概說』, くろしお出版, 1959.11, pp.32-36.

4) 韓榮均 「宗古聖教會 刊行의 國語史 資料에 대하여」, 『언어사실과 관점』 제32집,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13.11, p.2에서는 한국어학사적 관점에서 ‘現代 韓國語 胎動期’라는 용어로서 당시의 시기적 정체성을 규정하였다.

로 한국어가 처음 세계에 소개된 이래 한국어 연구와 학습서 및 문법서 간행에
 관련한 외국인 또는 결과물은 『歷代韓國文法大系』(제2판)에 소개된 1945년 해
 방 전까지의 내용만도 총 23명, 40여 권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본인이 작성한
 한국어 학습서 및 문법서는 1880년 호세코 시게카쓰(寶迫繁勝)의 『韓語入門』
 이후 유길준의 『大韓文典』이 나오는 1909년까지⁵⁾만 보더라도 11권이 간행⁶⁾되
 어 외국인에 의한 한국어 학습과 연구 서적의 전체 27.5%에 해당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 국내에서 일본인에 의해 간행된 한국어 학습서 또는 한국인에 의해
 간행된 일본어 학습서의 저자 유형을 보면 ‘일본인 단독’, ‘일본인 공저’, ‘한국인
 과 일본인 공저’의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며, ‘L2’로서의 회화 연습이 주된 목
 적⁷⁾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학습서 및 교재의 대부분은 문법 사항을 설
 명하는데 상당한 지면과 예문을 할애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문법의 숙지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필자는 이것이 『交隣須知』이후 근대기 일본인에 의한 첫 한국어 학습서인 『韓
 語入門』과 『日韓善隣通話』를 저술한 寶迫繁勝의 영향이 계승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어느 정도로 문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지는 Ⅲ장을 통해 살펴보기
 로 한다.

한편, 한국어 문법 기술 방식에 있어서는 서양 문법 체계를 적용하여 품사의
 분류를 시도하고 기능을 설명하며 이에 따른 어휘와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러한 구성상의 체계는 서양인 선교사들에 의해 일반화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용언의 활용에 있어서도 『大韓文典』보다 이른 시기부터 이미 한국어의
 동사 활용을 규칙과 불규칙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는 경향이 보이며 시제(時制,
 tense)와 상(相, aspect)⁸⁾의 개념을 적용하는 등 현대적인 문법 개념과 용어의

5)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한국어 문법서는 1897년 이봉운(李鳳雲)의 『국문정리(國文正理)』라고
 하겠으나 본고에서는 국어학계에서 한국어의 문법 체계를 정립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는 1909
 년 유길준의 『大韓文典』을 기준으로 하겠다.

6) 김민수·고영근 『歷代韓國文法大系』 제2판, 도서출판 박이정, 2008.4에 의거.

7) 이와 같은 견해는 한국어 학습서 부문에 있어서는 강복수 『國語文法史研究』, 형설출판사,
 1979.2, p.38에서 논하여진 바 있다.

8) 물론 현대 문법에서의 ‘相’과는 개념상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韓語
 通』에서는 동사의 태(態, voice)를 규정하는 개념을 ‘所相’, ‘勢相’, ‘使役相’과 같이 세 가지

등장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본고에서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일본인에 의해 간행된 한국어 학습서 가운데 1880년에 간행된 『韓語入門』과 『日韓善隣通話』와 1902년에 출판된 『實用韓語學』, 1895년에 한국인 일본인 공저 형식으로 간행된 일본어 학습서 『單語連語日話朝雋』의 네 가지 학습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선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韓語入門』과 『日韓善隣通話』는 개화기 한국에서 일본인에 의해 처음으로 간행된 근대 한국어 학습서의 시작이라는 역사적 의의와 함께 초기 한국어 학습서의 구성과 체계를 참고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單語連語日話朝雋』을 통해서는 일본어 학습서이기도 한 주요 대상을 한국인으로 삼고 있다는 점과 개화기 한국인과 일본인의 첫 공저 체제로 간행된 일본어 교재라는 점에서 한국인에 의해 반영된 일본어의 언어 체계를 비교, 대조하여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實用韓語學』을 통해서는 20세기 일본인에 의해 처음으로 간행된 한국어 학습서라는 의의와 함께 언어 학습에 있어서 ‘문법’을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으려는 경향과 1909년 『韓語通』, 『韓語文典』, 『文法註釋韓語研究法』과 같은 일본인에 의한 굵직한 한국어 학습서 간행 전까지의 일본어 및 같은 해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근대적 문법서인 『大韓文典』간행 전까지의 한국어를 관찰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번 고찰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현대 문법이 확립되고 완성되기까지 한일 양국어의 언어적 교섭 양상을 구명(究明)하는 기초 연구로서 근현대기 한일어에 나타나는 다양한 접촉의 일면을 밝히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개화기 한국어 학습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교재 분석 및 교육사적 맥락에서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일본’과 관련을 가진 연구는 텍스트의 분석뿐만 아니라 불가피했던 당시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며 한일 양국어 교육과 교

‘相’으로 표현하고 있다.

육사, 서지, 어휘의 비교, 대조 측면의 고찰이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 참고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중선(1994)은 19세기 개화기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발행된 일본어 학습서를 '韓日兩國語學習書', '文法書', '會話書', '辭典', '一般學習書', '教科書'의 여섯 가지 성격으로 분류하고 1893년부터 1910년까지의 일본어 학습서 14종을 대상으로 자료적 의의와 내용상의 특징, 한국어 학습서와의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을 가진 그의 많은 연구 가운데 또 한 가지로 한중선(2003)이 있다. 이 연구는 1909년 林圭가 간행한 『日文譯法』을 대상으로 한국인이 저술한 일본어 학습서를 통해 당시 한국어에 나타난 일본어 문법의 수용 양상을 단편적으로 살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품사 분류와 문법 용어 및 명칭에 대한 정리와 언급은 본 연구의 방법론 정립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다음은 이강민(2004)과 이강민(2007)을 들 수 있다. 이강민(2004)은 1880년 11월에 寶迫繁勝가 간행한 『韓語入門』과 『日韓善隣通話』가 메이지기(明治期, 이하 메이지기)에 제작, 인쇄된 최초의 한국어 학습서⁹⁾임에 착목하여 내용의 소개와 이후 한국어 학습서 편찬에 끼친 영향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이강민(2007)은 1902년 5월, 시마이 히로시(島井浩)에 의해 일본에서 간행된 『實用韓語學』을 고찰한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그가 지적하였듯이 『實用韓語學』이 이제껏 학문적으로 논의되어지지 않았던 상황¹⁰⁾에서 '언어 자료'로서의 가치를 재고하였다는데 있다. 이 두 논문은 본 연구의 고찰 방향을 정리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참고로 삼은 것이다.

강남욱(2009)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근대기 한국에서 한국어 교재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외국인이 작성한 한국어 학습서'라는 큰 틀에서 살핀 연구이다. 『독립신문』보다 먼저 한글 띄어쓰기를 적용(2009:208)한 J.

9) 이강민 「『韓語入門』과 『善隣通話』」, 『일본어문학』 23권, 한국일본어문학회, 2004.11, p.68.

10) 이강민 「島井浩와 『實用韓語學』」, 『일본학보』 71輯, 한국일본학회, 2007.4 p.79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本書 『實用韓語學』에 대해서는 일찍이 櫻井義之(1974)에서 메이지(明治)期 日本人의 朝鮮語學 研究業績의 하나로 소개되었다. 다만 櫻井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書誌學的인 입장에서의 문헌 소개를 시도한 것으로 아직까지 日本語學이나 韓國語學의 입장에서 本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Ross와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문법 규칙을 중요시(2009:212)한 입장을 취한 寶迫繁勝, 학습서의 구성에 있어서 전반 문형부와 후반 예문부가 상호 연관성(2009:217)을 가지고 학습자가 유기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구성한 J. S. Gale, 3인의 한국어 학습서를 예로 들어 근대 한국어 학습서에 나타난 주요 유형과 간행 방향을 기술하였다. 다만, J. Ross의 한국어 학습서에 대한 그의 평가 중 1877년 *Corean Primer*와 1882년 *Korean Speech*가 1896년 서재필의 『독립신문』보다 먼저 한글 띄어쓰기를 적용하였다는데 주목할 만하다(2009:208)는 언급은 두 학습서의 구성상 한국어 문장을 제시하고 그 하단부에 이와 대응되는 영어 단어, 발음을 기입한 방식임을 생각해 볼 때 영어식 어절 단위로 자연스럽게 혹은 불가피하게 궁리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관견이다.

한편, 본고의 고찰 시기는 벗어나지만, 『大韓文典』간행을 전후로 개화기말 일본인에 의해 작성된 한국어 학습서를 중심으로 그 종류와 편제, 성격 등을 파악하여 보기 위해 도움을 받은 연구 가운데에서는 이하의 논문들을 들 수 있다.

鄭世桓(2010)은 1909년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가 쓴 『韓語通』에 대하여 고찰한 최근의 연구이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韓語通』의 구성과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동사 항목을 중심으로 저자인 前間恭作가 한국어 동사를 어떻게 체계화하고 있는지 살피고 ‘大槻文法’과의 연계를 밝힘으로써 『韓語通』이 가진 문법서로서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최영철, 허재영(2014)은 한국어 교육사적 관점에서 근대 계몽기 당시 ‘조선 내의 일본인’과 ‘일본 내의 일본인’의 다각적 시점에서 한국어 학습서가 어떠한 변화의 추이를 보여 왔는지 고찰한 것이다. 특히 일본인이 한국어에 가지는 관심도의 시기별 양상을 역사적인 사실에 의거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것이 당시 한국어 학습서의 편찬 과정 및 의도에 어떠한 형태로 반영되었는지 『韓語入門』과 『日韓善隣通話』, 『日韓通話』, 『韓語通』의 네 가지를 들어서 기술하고 있다. 鄭世桓(2010)과 최영철, 허재영(2014)을 통해서는 고찰 관점의 비판적 시각과 담론을 형성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 다만, 최영철, 허재영(2014)은 일본인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서양 문법의 편제를 적용한 근대적인 한국어 학습서가 간행되기 시작하는 1880년을 고찰 시기에 포함하기 위해 ‘근대 계몽기’를 1876

년 개항 이후부터로 개화기의 시작과 함께 넣고 있어서 시기 상정 면에서 다소 이른¹¹⁾ 느낌이 없지 않고, 무엇보다 자료와 저자명의 확인¹²⁾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메이지기 일본의 관점에서 한국어 교재를 연구한 성과 가운데 사이토 아케미(齊藤明美(2006a))는 메이지기에 간행된 한국어 학습서와 『交隣須知』와의 비교, 대조를 통해 당시의 한국어와 일본어의 특징을 규명하려 하였다. 그리고 齊藤明美(2006b)는 『韓語通』의 체제와 내용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특히 『韓語通』의 저자인 前間恭作가 메이지 37년 본 『校訂交隣須知』의 저자이기도하다는 점을 들어 『韓語通』과 『交隣須知』와의 연관성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 외에 1909년 『文法註釋韓語研究法』을 편찬한 야쿠시지 지로(藥師寺知囀)의 생애를 다룬 우에다 고지(植田晃次(2011))의 논문이 있다. 한국어 학습서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은 적으나 ‘인물’로서의 藥師寺知囀를 돌이켜 봄으로써 그의 다양한 활동과 당시 한일 양국의 시대적 동향과 사회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Ⅲ. 학습서 고찰

본고에서 조사에 참고한 『歷代韓國文法大系』(제2판)을 통하여 기술해 보면 외국인에 의해 간행된 한국어 학습서는 총 49권이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 대상 시기로 규정한 1880년부터 1902년까지 외국인에 의해 간행된 한국어 학습서는 교재의 구성과 체제 및 한국어 표기와 문법 관련 사항의 기술 등에 대한 비교 대조 자료로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 일본어 학습서인 『單語連語日話朝雋』를 넣어서 16권으로 좁혀진다.

다음 <표1>은 『歷代韓國文法大系』(제2판)의 시기 구분을 기준으로 1880년

11) 물론 이 시기의 규정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으나, 한국의 근대 계몽기는 1894년 갑오경장을 기점으로 보는 입장이 적지 않으며 필자 역시 이에 따랐다.

12) 예를 들어 해당 논문 p.466 표에 제시된 (7) 속성, ‘실용’, 독습용 한국어 학습서 목록에서 『旅行必要日韓清對話自在』는 『旅行必用日韓清對話自在』, 『日清韓三國會話』의 저자는 1895년에 『台灣會話編』(嵩山房)도 간행하고 있는 坂井釵五郎이다.

부터 고찰 범위인 1902년을 포함하여 유길준의 『大韓文典』이 간행된 1910년까지 외국인이 저술한 한국어 학습서 포함 관련 문헌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고찰 대상으로 삼은 자료에 대해서는 그라테이션과 볼드체로 나타내었으며, 일본인명 및 서명 역시 당시의 표기를 반영하였다.

〈표1〉 외국인 저술한 한국어 학습서 및 교재 목록(1880-1910)

시기 구분	연도	저자	서명
1기	1880.11	寶迫繁勝	韓語入門 上下
1기	1880.11	寶迫繁勝	日韓善隣通話 上下
1기	1880-1882	J. MacIntyre	Notes on the Korean Language
1기	1881	F. C. Ridel	Grammaire Coréenne
1기	1882	J. Ross	Korean Speech
1기	1882	W. E. Griffis	The Korean Language
1기	1887	J. Scott · M. C. Imbault-Huart	언문말책 4 Corean Manual, or phrase Book M.C. Imbault-Huart with Introductory Grammar
1기	1889	M. C. Imbault-Huart	Manuel de la langue coréenne parlée
1기	1890.5.1	H. G. Underwood	韓英文法 한영문법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1기	1891	J. Scott	Introduction (English-Corean Dictionary)
1기	1893	J. Scott	A Korean Manual or Phrase Book (2nd ed.)
1기	1894	J. S. Gale(奇一)	辭課指南 스펠지남 Korean Grammatical Forms
1기	1895.6	李鳳雲·境益太郎	單語連語日話朝雋
2기	1902.5.30	島井造	實用韓語學
2기	1903.3.21	小藤次郎 · 金澤壓三郎	A Catalogue of Romanized Geographical Names of Korea 羅馬字索引 朝鮮地名 字彙
2기	1909.5.8	前問恭作	韓語通
2기	1909.6.23	高橋亨	韓語文典
2기	1909.10.15	藥師寺知曠	文法註釋韓語研究法
2기	1910.12.15	趙義淵 · 井田勤衛	日韓韓日言語集

이에 본 III장에서는 『韓語入門』과 『日韓善隣通話』, 『單語連語日話朝雋』, 『實用韓語學』에 대한 각 구성 체계와 내용을 정리하는 동시에 문법 관련 기술과 설명에서 나타나는 일본어를 관찰하고 그 특징과 의의를 함께 생각하여 보기로

하겠다.

1. 『韓語入門』

『韓語入門』은 상하 2권이며, 상권은 다시 1편과 2편, 하권은 3편과 4편으로 구성되었다. 저자인 寶迫繁勝는 김민수·고영근(200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82년도 판 『改訂 隣語大方』3冊의 印刷者이며 1883년도 판 『交隣須知』4卷 4冊의 削正者로서 일본 관련 연구자에게는 익숙한 인물이기도 하다. 책 제목에서 사용된 ‘入門’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현대적 개념으로는 초급 한국어 학습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韓語入門』은 각 장의 도입부마다 해당 문법 사항이 포함된 짧은 문장을 제시 하여 다룰 내용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韓語入門』이 한국어의 문법 습득에 어느 정도로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동시에 寶迫繁勝가 『韓語入門』에 이어서 동일한 해에 간행한 『日韓善隣通話』를 공부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참고서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日韓善隣通話』에 대해서는 2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진 가운데 상권은 한글의 발음과 자모 구성에 대한 설명이며, 하권은 한국어의 높임법과 명령문, 의문문 및 어휘로 실질적인 언어 구사 연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실제 한국어 구사에 필요한 문법적 요소들이 『韓語入門』을 숙지하고 있다면 더 용이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의도된 느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교재의 구성을 보면 먼저, 상권의 1편은 1장 언문(諺文)과 2장 언문철법(諺文綴法), 2편은 3장 체언(體言)으로 나누어지며, 이 체언은 어휘별 주제에 따라 ‘天文, 地理, 人品, 身體, 時節…(중략)…武備’의 총 48개¹³⁾로 분류되어있다.

이와 같은 주제별 항목 제시 방식은 『역어유해(譯語類解)』, 『동문유해(同文類解)』, 『왜어유해(倭語類解)』, 『몽어유해(蒙語類解)』등의 유해류(類解類)와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다만, 상권 第1篇 第1章 諺文 도입부에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는 한글 자모에 대한 99개음 체계는 현재의 분류와 반대되는 것이다. 이

13) 김정숙 「19세기 말의 한국어 학습서 연구」, 『이중언어학』 49, 이중언어학회, 2012.6, p.103에 서는 ‘46개의 주제별 어휘’라고 하였으나 48개가 맞다.

〈그림1〉 『韓語入門』3장 체언의 주제별 목록(전체)

日次 一		<table border="1"> <tr> <td>水</td><td>泉</td><td>井</td><td>池</td><td>江</td><td>川</td></tr> <tr> <td>木</td><td>林</td><td>園</td><td>田</td><td>園</td><td>園</td></tr> <tr> <td>草</td><td>花</td><td>卉</td><td>菜</td><td>蔬</td><td>菓</td></tr> <tr> <td>衣</td><td>裳</td><td>袴</td><td>履</td><td>靴</td><td>履</td></tr> <tr> <td>婦</td><td>女</td><td>孀</td><td>妻</td><td>妾</td><td>媵</td></tr> <tr> <td>女</td><td>童</td><td>媼</td><td>媵</td><td>媵</td><td>媵</td></tr> </table>						水	泉	井	池	江	川	木	林	園	田	園	園	草	花	卉	菜	蔬	菓	衣	裳	袴	履	靴	履	婦	女	孀	妻	妾	媵	女	童	媼	媵	媵	媵	韓語			
		水	泉	井	池	江	川																																								
木	林	園	田	園	園																																										
草	花	卉	菜	蔬	菓																																										
衣	裳	袴	履	靴	履																																										
婦	女	孀	妻	妾	媵																																										
女	童	媼	媵	媵	媵																																										
日次 二		<table border="1"> <tr> <td>天</td><td>文</td><td>時</td><td>節</td><td>晝</td><td>夜</td></tr> <tr> <td>地</td><td>理</td><td>江</td><td>湖</td><td>水</td><td>貌</td></tr> <tr> <td>人</td><td>品</td><td>官</td><td>爵</td><td>人</td><td>倫</td></tr> <tr> <td>身</td><td>體</td><td>形</td><td>貌</td><td>類</td><td>族</td></tr> <tr> <td>走</td><td>獸</td><td>類</td><td>部</td><td>類</td><td>部</td></tr> <tr> <td>走</td><td>獸</td><td>類</td><td>部</td><td>類</td><td>部</td></tr> </table>						天	文	時	節	晝	夜	地	理	江	湖	水	貌	人	品	官	爵	人	倫	身	體	形	貌	類	族	走	獸	類	部	類	部	走	獸	類	部	類	部	韓語			
		天	文	時	節	晝	夜																																								
地	理	江	湖	水	貌																																										
人	品	官	爵	人	倫																																										
身	體	形	貌	類	族																																										
走	獸	類	部	類	部																																										
走	獸	類	部	類	部																																										

日次 一		<p>第一人称 第二人称 第三人称</p> <p>男性 女性 普通性 中性</p> <p>係形體之名詞 名詞之數 同上單複數之詞</p> <p>名詞之格 主格用法 物主格用法</p> <p>日動格用法 獨立格</p> <p>第六章</p> <p>代名詞</p>						韓語			
		日次 三		<p>下之卷</p> <p>第三章</p> <p>第四章</p> <p>統括名詞 普通名詞 獨立名詞</p> <p>上三名詞之詞</p> <p>第五章</p> <p>器具 動物 文式 式體</p>						韓語	

러한 체계는 『日韓善隣通話』에서도 채택이 되어있으니 다음 2절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다.

하권은 3편부터 명사를 수록한 4장으로 시작하며 본격적인 문법 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寶迫繁勝는 『韓語入門』을 통하여 한국어의 명사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性(gender)'과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명사의 네 가지 성 : 남성성, 여성성, 중성, 보통성

명사의 세 가지 범주 : 통괄(統括), 보통(普通), 독립(獨立)

명사의 네 가지 성 분류는 보통성에 해당하는 명사 어휘를 보면 영어의 통성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남성(Masculine Gender), 여성(Feminine Gender), 중성(Neuter Gender), 통성(Common Gender)¹⁴⁾의 영어식 분류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한국어 문법의 체계화에 있어서 인구어(印歐語)적 영향을 엿볼 수 있는 다른 한 가지 예가 '분사(分詞)' 개념의 도입이다. '갓다/ㅎ다', '가더니/ㅎ더니', '갓더니/ㅎ앗더니'를 각각 第1過去, 第2過去, 第3過去와 같이 나누고 이를 각각 '過去分詞'로 설명한 것이다.

사전을 중심으로 한 필자의 조사¹⁵⁾에 따르면 일본에서 '分詞'에 대한 언급은 에도(江戸, 이하 에도) 초기 1814년 일본에서 간행된 가장 오래된 영어 사전인 『諳厄利亜(あんげりあ)語林大成』(本木正榮)에서 '動靜詞'라는 번역이 있으며, 에도 말기에는 1862년에 간행된 영일사전 『英和对訳袖珍辞書』(堀達之助·堀越龜之助 공저)를 통해 '分辞'의 형태로 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寶迫繁勝 '分詞'의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인도 유럽어족(印歐語) 문법의 이해를 통해 일본어에서 '動靜詞' 또는 '分辞'로 번역된 'participle'의 존재와 기능의 주지가 선행된 상태에서 한국어에서 관찰된 유사한 문법적 기능을 규정하는데 적용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14) 남녀의 구별은 존재하지만, 구별하여 나타내지 않는 성.

15) 문법서를 대상으로 하면 1812년에 藤林普山에 의해 일본인이 기술한 가장 오래 된 네덜란드어 문법서로 알려진 『和蘭語法解』에서 '分言'의 출현이 보인다. 또한, 품사는 '分言'을 포함하여 '性言', '名言', '代言', '活言', '添言', '接言', '上言', '感言'의 9품사 체계로 나누었다.

그리고 명사의 세 가지 범주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의존명사는 등장하지 않으며, 통괄명사와 보통명사는 현대 한일어에서의 보통명사, 독립명사는 고유명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현대적인 한일어 명사의 기능과 의미 분류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지만, 1880년에 일본인에 의해서 역할 및 의미 기능, 용법에 따라 나름의 기준을 반영하였고 ‘대명사’, ‘형용사’, ‘단수’, ‘복수’, ‘인칭’, ‘격 관계’ 개념과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양 문법 체계를 충실하게 반영하려한 寶迫繁勝의 의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未然’, ‘連語’와 같은 일본 문법 용어의 사용 양상도 나타나고 있어서 寶迫繁勝의 『韓語入門』은 서양 문법 개념과 일본 문법 개념의 절충을 통해 한국어 문법을 체계화하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未然’은 『韓語入門』에서는 현대 일본어 학교 문법에서의 “まだそうではない。”라기 보다는 현대 일본어 학교 문법의 ‘意向形’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よ)う’와 대응되는 형태의 ‘ㅎ자’, ‘가자’, ‘보자’, ‘닥자’, ‘먹자’에 대해 ‘未然’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寶迫繁勝가 한국어 동사의 시제를 분류함에 있어서 “そうしようとする。” 또는 “そうなるだろう。”의 의미로서 에도기 國學에서 ‘將然言’으로 부르고 있는 ‘未然’의 개념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連語’ 역시 현대의 ‘Collocation’이 아닌, 당시 일본어 문법에서는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거나 또는 문장을 만드는 일련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실제로 ‘連語’부에서는 제시어에 따른 문장에가 수록되어있다.

자료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살펴본 바로는 당시 간행된 한국어 학습서들은 상호 연계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연계성은 책의 구성 방식과 같은 형식적인 부분부터 사용 어휘 및 문법 설명 방식의 내용적인 부분에 까지 이른다. 그 예로 『韓語入門』의 상권 2편 3장 체언의 주제별 어휘 목록과 용례는 『交隣須知』와 유사하며 이러한 양상은 후에 『辭課指南 스키지남 Korean Grammatical Forms』(이하 『스키지남』)에서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림2〉 『스과지남』의 어휘별 주제 목록(일부)

SENTENCES.		KOREAN GRAMMATICAL FORMS.
<p>天文 Astronomy.</p>	<p>方位 Location-direction</p>	<p>日時 Days and Times.</p>
<p>(1) 리가발서경오나되외스함파도 날이조리니조색이할수업다 The sun must be already about the meridian line but as the day is cloudy I cannot tell exactly.</p>	<p>(141) 동산에올나뵈구경홈세다 Let us go up the east mountain to see the flowers. (142) 산봉에올나뵈듯눈구경홈세 Let us go up to the mountain top to have a look at the snow.</p>	<p>(91) 뒤린년염내하물장가보내겟다 In two years or so I will carry off my son. (94) 추일은춘츄에잇느니 The (good/festive days) occur in spring and autumn.</p>
<p>(19) 물이붉으니너하귀나들라잡세다 It is bright across light for us here a talk before you go. (or supposing we have a talk and go)</p>	<p>(143) 서산에회계잡다 The sun is going down over the west mountain.</p>	<p>(91) 낮은삼스할이매일거려다 In the 3rd. and 4th. months the days are the longest.</p>
<p>(31) 로헌성이남극에잇는티보련장 슈달다올넨다 The 26-is (old man) star is at the south pole. It is said that one seeing it will live to a great age.</p>	<p>(144) 남으로머리두고자면장수하고 북으로머리두고자면단명줄다 흥넨다 It is said that if you sleep with your head toward the south you will live long; if toward the north you will die soon.</p>	<p>(91) 밤이쇼르니사하름에너리나기 고답돌너다 Because the nights are short, getting up in the morning tires one.</p>
<p>(61) 삼려성은북두남편에잇스니인 간삼공을용훈겨서라 The three stars are north of the Dipper and are the ones that correspond to the three chief ministers of state.</p>	<p>(145) 왼손으로밥먹지마라 Do not eat your rice with the left hand.</p>	<p>(97) 아름에일찍너리나기면산울분 라보련구름이뭉겨뭉겨너리나 서맛겨병공원것조흠매다 They say that if you get up early in the morning and look out toward the opposite mountain the clouds rise in volume and look like a woman. (It, something made into a woman.)</p>
	<p>(146) 어른알혀서지말고물너서라 Do not stand before an elder—stand off.</p>	

이와 같은 관찰은 이장민(2004:77)의 김정숙(2012:104), 강남욱(2009:217) 등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1894년 J. S. Gale이 『스과지남』을 편찬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간행된 여러 한국어 학습서들을 살펴보며 동양인의 관점에서 작성된 서적을 참고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에 대한 논거는 근현대기 어학 교재의 개별 연구를 진행하며 상세하게 논증해 보 이고자 한다.

2. 『日韓善隣通話』

『日韓善隣通話』역시 상기의 『韓語入門』과 같은 상하권 편제로 寶迫繁勝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通話’로 인하여 ‘회화’에 중점을 둔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앞서 1절에서 잠시 언급하였으나 『日韓善隣通話』는 한국어의 발음 체계인 한글 자모(字母)를 조합하여 ‘99音圖’로 정리하고, 이를 ‘九十九音之圖’라는 제목 하에 도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3〉 『日韓善隣通話』의 한글 자모 ‘九十九音之圖’

상기의 <그림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글 자모를 99개음으로 조합하여 나타난 것은 앞서 간행한 『韓語入門』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寶迫繁勝가 『韓語入門』에 이어서 『日韓善隣通話』에서도 적용한 이러한 방법은 일본어의 '50音圖'16)에 맞추어 한국어 발음을 규칙화하고자 했던 시도로 생각된다. 50音圖의 제시 방법이 행(行)과 단(段) 구성임을 생각할 때 일본어와 동일한 CV구조의 한국어를 일본어의 편제에 맞추어 규범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九十九音之圖'과 “가ハ母音_カト子音_クト合シテガトナリガハ…(생략)”17)와 같은 해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ㄱ, ㅋ, ㆁ, ㆅ, ㆆ, 入, 〇’의 8개 자음과 ‘ㅣ’의 1개 모음을 ‘모음’으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ㆍ’의 11개 모음을 오히려 ‘자음’으로 제시하였고, ‘ㅣ’에 대해서는 자음과 모음 두 영

16) 이러한 지적은 이강민 「『韓語入門』과 『善隣通話』, 『일본어문학』 23권, 한국일본어문화회, 2004.11, p.73에서도 보인다.

17) 『日清韓三國通話』(天淵)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와 같은 양상은 1894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해 간행된 『韓語獨習通信誌』(大韓起業調查局通信部編)에서는 50음도에 한글 자모를 직접 대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에 걸쳐 놓았다. 그리고 ‘ㅈ’에 대해서는 자모의 언급이 없으나 ‘九十九音之圖’의 모음부에 넣은 것으로 보아서 모음으로 인식한 듯하다.

『日韓善隣通話』는 그 구성에 있어서도 회화서로서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으며 한국어의 문법적인 특성을 규칙화하고 이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는데 적지 않은 지면을 채우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리가 돋보이는 부분으로써 한국어의 방언과 경어 체계에 대한 이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선행연구들의 한결같은 지적을 통해 방언과 경어는 1880년 이전 서양인에 의해 저술된 한국어 학습서에서는 체계적으로 다루어진 예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이 확인한 바, 『日韓善隣通話』가 가진 근대적인 한국어 교재로서의 가치와 함께 寶迫繁勝의 기획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방언은 상권 제1편 제7장의 ‘言語之正格訛格’에서 다루고 있으며 ‘일본어 정격어(正格語)’와 ‘동경 세속어(東京世俗語)’, ‘한국어 정격어’와 ‘경상도 세속어’의 구분 방식을 채용하여 문장 단위와 단어 단위의 짧은 예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어서 경어는 하권 제2편 제18장 ‘常語三等之別’을 통해서 기술하고 있다. ‘三等’은 ‘上等’, ‘中等’, ‘下等’을 가리키는 것인데, 上等에 속하는 높임말은 ‘계시다’와 같이 어휘 자체를 포함하여 ‘-히니다’와 ‘-소서’, ‘-외다’, ‘-리다’ 및 선어말어미 ‘-시-’, ‘-하옵·자옵·사옵’과 같은 유형이다. 이에 대한 일본어 대응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평안히계시니잇가	ゴ平安ニゴザナサレマスカ
(2) 부산의잇습닛○	釜山ニ井マス
(3) 눈이녹아졌습닛○	雪ガトケマス
(4) 서리가왔습닛니잇가	露ガフリマシタカ
(5) 자셔보옵쇼셔	タベテゴランナサレマセ

상기 (1)~(5)의 예를 통해 上等으로 구분한 한국어 경어는 일본어에서는 존경 및 정중에 해당하는 범주임을 알 수 있다. 中等은 ‘-오’, ‘-소’, ‘-외’ 류, 下等은 보통체 및 반말투와 명령어투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어 ‘칩스외’의 일본어역(譯)을 “サムウゴサル”^{チブサーライ}와 같이 ‘ござる’로 대응시킨 것으로 보아 中等이 포괄하는 일본어의 경어 문체는 주로 ‘ござる’體로 보이며, 上等과 下等の 어미

가 동일하게 '-다'로 끝나는 경우, 下等에서는 '미오덱다'와 같이 어미 '-다'를 그대로 제시하였으나, 上等에서는 '미오덱습너○'처럼 '-다' 자리에 '○'로 대신 하여 똑같은 문말어미 '-다'라고 하더라도 존경어와 보통체를 구분함으로써 학습자를 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권은 18장 경어에 이어서 제19장 '命令語并問語'을 통해 명령문과 의문문, 제20장 '各物名詞'을 통해 한국어 어휘와 단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여 구성적인 면에서도 문법 지식에 기반을 둔 회화 연습과 어휘 활용이 가능하도록 궁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寶迫繁勝가 범례(凡例)에서 밝힌 '독학용' 한국어 학습서의 의도를 담아내고자 노력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본의 근대식 외국어 교육에서 문법의 습득을 중요시하게 된 시기 내지 계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나, 일본의 개항과 서구 언어와의 접촉 과정에서 촉발된 일본 내 정책적, 사상적 대립 속에서 기틀이 마련된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한 예로 1872년 모리 아리노리(森有礼)의 '국어외국어화론(國語外國語化論)'이 하나의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지와 같이 그는 일본어의 '한계'를 피력한 가운데 위트니(William Dwight Whitney), 바바 다쓰이(馬場辰猪) 등에 의해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으며, 馬場辰猪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ELEMENTARY GRAMMAR OF THE JAPANESE LANGUAGE WITH EASY PROGRESSIVE EXERCISES*(이하 『日本語文典』)를 저술하였다. 『日本語文典』은 일본 최초의 구어문법서인 동시에 '大槻文法'의 등장 이전, 일본 내 국어 논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문법 중심'의 외국어 학습 방법에도 파급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파급력은 1880년대를 전후로 한국어 교육과 학습에 있어서는 寶迫繁勝에 의해 계승되었고 이후 前間恭作과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兵)등으로 발전되어 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서 1절에서도 진술하였듯이 寶迫繁勝은 1880년에 이미 한국어의 명사를 분류하고 조사를 격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동사의 활용, 시제 성립의 조건과 규칙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日韓善隣通話』을 통해서도 나름의 기준으로 한국어의 경어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交隣須知』이후 寶迫繁勝에 의하여 일본인이 간행한 첫 근대기 한국어 학습서

가 내용과 구성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로 체계적인 것이었는지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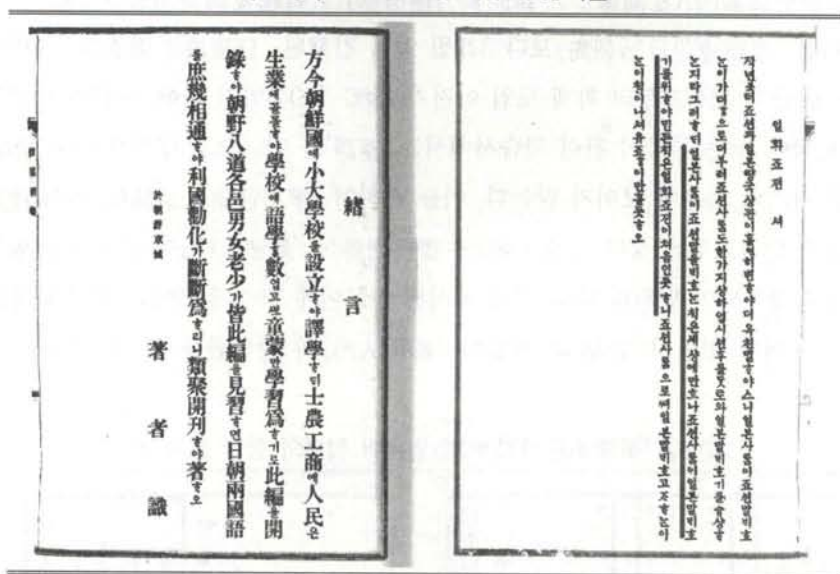
3. 『單語連語日話朝雋』

『單語連語日話朝雋』은 이봉운과 境益太郎가 1895년에 간행한 일본어 학습서이다. 境益太郎에 대해서는 『單語連語日話朝雋』의 저자라는 기술 외에는 알려진 내용이나 기록이 없는데 한국인 저자인 이봉운에 대해서는 김민수·하동호·고영근(1985)에 따르면 『單語連語日話朝雋』의 한글 표기법이 『捷解新語』류와 유사함을 들어 그가 역관(譯官)출신이었을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이봉운은 『單語連語日話朝雋』이후 2년 후인 1897년, 1905년의 주시경보다 먼저 한글 전용을 제창한 『국문정리(國文正理)』의 저술을 통해 한국어 문장 확립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민수·하동호·고영근(1985)과 한중선(1994:145) 등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單語連語日話朝雋』은 서문에서의 “일본스럽이조선말을 비호는 칙은세상에만흐나조선사람이일본말을비호기를위호야민든칙은일화조건이쳐음인듯흐니”와 같이 밝힌 언급을 근거로 하여 한국인이 일본어를 배우기 위한 개화기 최초의 일본어 학습서라는 사료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單語連語日話朝雋』은 세로쓰기를 채택하였으며, ‘正月 정월 송아즈’와 같이 ‘표제어, 한국어, 일본어 발음’의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징적인 것은 일본어의 발음을 모두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과 일본어 탁음을 한글로 밝히는데 ‘가 가 °가’, ‘지 지 °지’, ‘부 부 °부’와 같이 한글 자음 ‘ㄴ’, ‘ㄹ’, ‘ㅇ’을 기호처럼 병기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표기상에 나타난 이러한 특징은 『捷解新語』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조선 중기 일본어 학습서의 전통이 개화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학습서 구성과 표기 체계에 있어서 일본어 역관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봉운이 독자들에게 형식적 잉여성(formality redundancy)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술하였으나 『單語連語日話朝雋』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학습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찰 범위에 넣은 이유는 서론에서 언급한 근대기 한국 최초의 일본어 학습서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와 함께 한국인 일본인 공저

〈그림4〉 『單語連語日話朝雋』서문



체제로서 일본어의 한글 표기 모습과 한국어 언어 체계로 일본어의 체계를 설명하려는 당시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⁸⁾ 특징적인 양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몇 가지 양상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單語連語日話朝雋』은 단권(單券)으로 ‘單語目錄’과 ‘連語目錄’의 두 가지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 제목의 ‘單語連語’는 이러한 구성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連語目錄을 독립적인 단원으로 다룬 것은 금번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2년 앞서 國分國夫가 1893년에 간행한 『日韓通話』, 松榮竹次郎의 『朝鮮俗語早學』이하 같은 해인 1894년에 간행된 『實用朝鮮語·正編』(中島謙吉), 『速成獨學朝鮮日本會話篇』(金玉堂), 『日韓會話』(參謀本部), 『新撰朝鮮會話』(洪奭鉉), 『日清韓三國對照會話篇』(松本仁吉), 『獨習速成日韓清會話』(吉野佐之助), 『旅行必用日韓清對話自在』(太刀川吉次), 『日清韓三國會話』(坂井釵五郎), 『日清韓三國通話』(天淵), 『

18) 이와 관련하여 김민수·고영근 『歷代韓國文法大系』 제2판, 도서출판 박이정, 2008.4, 李鳳雲·境益太郎 『單語連語日話朝雋』解說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單語連語日話朝雋』에는 西歐文法の 敘述은 없으나, 日語에 대한 外國語表記案으로서 중요한 文獻이며, 1880년대 寶迫繁勝의 『韓語入門』 『日韓善隣通話』 등과 대조되는 한편 그의 『국문정리(國文正理)』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朝鮮語學獨案內』(松岡馨), 『韓語獨習通信誌』(大韓起業調査局通信部編) 및 1895년 『單語連語日話朝雋』보다 3개월 앞서 간행된 『日清韓語獨稽古』(漢學散人) 등 근대 계몽기부터 학제 도입 이전기(1880-1894)까지 간행, 출판된 대부분의 한국어 또는 한국어 관련 학습서에서는 ‘連語’를 단원으로 구성하거나 ‘連語’ 표현 자체의 사용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하여 『單語連語日話朝雋』에서 連語目錄을 단원으로 구성한 것은 1880년 寶迫繁勝의 『韓語入門』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단원의 내용 역시 제시된 한국어에 맞춘 일본어의 문장 대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連語’의 개념이 『韓語入門』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림5〉 『單語連語日話朝雋』일본어 탁음의 한글 표기 방안

<table border="1"> <tr> <td>二</td><td>一</td><td>十</td><td>九</td><td>八</td><td>七</td><td>六</td><td>五</td><td>四</td><td>三</td><td>二</td><td>一</td> </tr> <tr> <td>들</td><td>히아</td><td>심</td><td>구</td><td>갈</td><td>칠</td><td>죽</td><td>오</td><td>소</td><td>슴</td><td>니</td><td>힐</td> </tr> <tr> <td>후마즈</td><td>히도즈</td><td>구</td><td>구</td><td>하</td><td>치</td><td>죽</td><td>오</td><td>시</td><td>산</td><td>니</td><td>비</td> </tr> <tr> <td></td><td></td><td>구</td><td>하</td><td>치</td><td>죽</td><td>죽</td><td>오</td><td>시</td><td>산</td><td>니</td><td>비</td> </tr> </table>										二	一	十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一	들	히아	심	구	갈	칠	죽	오	소	슴	니	힐	후마즈	히도즈	구	구	하	치	죽	오	시	산	니	비			구	하	치	죽	죽	오	시	산	니	비	<table border="1"> <tr> <td>二</td><td>一</td><td>十</td><td>九</td><td>八</td><td>七</td><td>六</td><td>五</td><td>四</td><td>三</td><td>二</td><td>一</td> </tr> <tr> <td>들</td><td>히아</td><td>심</td><td>구</td><td>갈</td><td>칠</td><td>죽</td><td>오</td><td>소</td><td>슴</td><td>니</td><td>힐</td> </tr> <tr> <td>후마즈</td><td>히도즈</td><td>구</td><td>구</td><td>하</td><td>치</td><td>죽</td><td>오</td><td>시</td><td>산</td><td>니</td><td>비</td> </tr> <tr> <td></td><td></td><td>구</td><td>하</td><td>치</td><td>죽</td><td>죽</td><td>오</td><td>시</td><td>산</td><td>니</td><td>비</td> </tr> </table>										二	一	十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一	들	히아	심	구	갈	칠	죽	오	소	슴	니	힐	후마즈	히도즈	구	구	하	치	죽	오	시	산	니	비			구	하	치	죽	죽	오	시	산	니	비
二	一	十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一																																																																																																								
들	히아	심	구	갈	칠	죽	오	소	슴	니	힐																																																																																																								
후마즈	히도즈	구	구	하	치	죽	오	시	산	니	비																																																																																																								
		구	하	치	죽	죽	오	시	산	니	비																																																																																																								
二	一	十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一																																																																																																								
들	히아	심	구	갈	칠	죽	오	소	슴	니	힐																																																																																																								
후마즈	히도즈	구	구	하	치	죽	오	시	산	니	비																																																																																																								
		구	하	치	죽	죽	오	시	산	니	비																																																																																																								
<table border="1"> <tr> <td>一</td><td>二</td><td>三</td><td>四</td><td>五</td><td>六</td><td>七</td><td>八</td><td>九</td><td>十</td> </tr> <tr> <td>일</td><td>이</td><td>삼</td><td>사</td><td>오</td><td>육</td><td>칠</td><td>팔</td><td>구</td><td>십</td> </tr> <tr> <td>일</td><td>이</td><td>삼</td><td>사</td><td>오</td><td>육</td><td>칠</td><td>팔</td><td>구</td><td>십</td> </tr> <tr> <td>일</td><td>이</td><td>삼</td><td>사</td><td>오</td><td>육</td><td>칠</td><td>팔</td><td>구</td><td>십</td> </tr> </table>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table border="1"> <tr> <td>一</td><td>二</td><td>三</td><td>四</td><td>五</td><td>六</td><td>七</td><td>八</td><td>九</td><td>十</td> </tr> <tr> <td>일</td><td>이</td><td>삼</td><td>사</td><td>오</td><td>육</td><td>칠</td><td>팔</td><td>구</td><td>십</td> </tr> <tr> <td>일</td><td>이</td><td>삼</td><td>사</td><td>오</td><td>육</td><td>칠</td><td>팔</td><td>구</td><td>십</td> </tr> <tr> <td>일</td><td>이</td><td>삼</td><td>사</td><td>오</td><td>육</td><td>칠</td><td>팔</td><td>구</td><td>십</td> </tr> </table>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table border="1"> <tr> <td>一</td><td>二</td><td>三</td><td>四</td><td>五</td><td>六</td><td>七</td><td>八</td><td>九</td><td>十</td> </tr> <tr> <td>일</td><td>이</td><td>삼</td><td>사</td><td>오</td><td>육</td><td>칠</td><td>팔</td><td>구</td><td>십</td> </tr> <tr> <td>일</td><td>이</td><td>삼</td><td>사</td><td>오</td><td>육</td><td>칠</td><td>팔</td><td>구</td><td>십</td> </tr> <tr> <td>일</td><td>이</td><td>삼</td><td>사</td><td>오</td><td>육</td><td>칠</td><td>팔</td><td>구</td><td>십</td> </tr> </table>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table border="1"> <tr> <td>一</td><td>二</td><td>三</td><td>四</td><td>五</td><td>六</td><td>七</td><td>八</td><td>九</td><td>十</td> </tr> <tr> <td>일</td><td>이</td><td>삼</td><td>사</td><td>오</td><td>육</td><td>칠</td><td>팔</td><td>구</td><td>십</td> </tr> <tr> <td>일</td><td>이</td><td>삼</td><td>사</td><td>오</td><td>육</td><td>칠</td><td>팔</td><td>구</td><td>십</td> </tr> <tr> <td>일</td><td>이</td><td>삼</td><td>사</td><td>오</td><td>육</td><td>칠</td><td>팔</td><td>구</td><td>십</td> </tr> </table>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한편, 單語目錄은 ‘日本數交部’, ‘日本錢數部’, ‘朝鮮錢數部’, ‘朔數部’, ‘日數部’, ‘時數部’, ‘天文部’, ‘地理部’, ‘日本國都部’, ‘朝鮮國都部’ 등의 31개 부(部)로 되어있으며, 連語目錄은 ‘初步部’, ‘天文部’, ‘地理部’, ‘人事部’, ‘軍整部’, ‘政事部’, ‘形容詞部’의 7개 부로 구성되어있다. 단어목록의 각 부 가운데 특히 ‘日本錢數部’와 ‘朝鮮錢數部’에서는 한일 양국의 모든 화폐 단위를 들기 어려우므로 “돈세음을니로다쓰지못홀터이니가량만니여쓰니수효만비호면즈연이아오” 또

는 “조선돈수가량도일본돈수가량갓호니짐작호오”와 같은 저작자의 해설을 첨가한 부분이 눈에 띈다.

발음상에 나타난 표기의 특징 역시 인상적이다. 우선, 현대 일본어의 반탁음 ‘*ぱびふべぼ*’를 ‘일본청음(淸音)’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청음은글즈엽해동그람 이를호야스니조선언문과즈줄이되느줄아시오”과 같은 해설을 덧붙였다. 그리고 『捷解新語』에서 구현한 당시 일본어의 연구개비음(軟口蓋鼻音) 양상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다음은 일부 예이다.

- | | |
|------------------|--|
| (1) 날이치우니불좀피여노아라 | 덴킹아 사무이가라 히오 오고세 ¹⁹⁾ |
| (2) 구름이산을덮혔소 | 구몽아 아마오 오오이마시다 又가구시 마시다 ²⁰⁾ |
| (3) 즉시오시오 | 승으 오이데 나사이 ²¹⁾ |

상기 예문을 보면 “날이치우니불좀피여노아라”에 대한 한글음 일본어 예문인 “덴킹아 사무이가라 히오 오고세”에서의 ‘덴킹아(天氣가)’, “구름이산을덮혔소”의 한글음 일본어 예문인 “구몽아 아마오 오오이마시다 又가구시 마시다”의 ‘구몽아(雲가)’, “즉시오시오”에서의 ‘승으(すぐ)’ 등과 같이 발음하고 있다. 특히 예문 (1)과 (2)는 동일한 ‘天文部’ 등장 예문 가운데 “바람불고비가오니길가 기어렵소이다”에 대한 “가제가 후이데 아메가 후루가라 이구노니 고마리마스”²²⁾와 같은 문장에서 ‘風가’, ‘雨가’의 주격조사 ‘가’를 ‘가’²³⁾와 같이 연구개비음 없이 제시한 부분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일본어 비탁음(鼻濁音)의 반영도 보이는데 ‘石鏡’에 대하여 ‘강아미’²⁴⁾와 같이 표기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單語連語日話朝雋』의 일본어 발음과 그 표기는 기본적으로 『捷解新語』에 따르고 있으며 학습 목표로 삼고 있는 일본어가

19) 連語目録 중 天文部. “氣が寒いから火を熾せ”

20) 連語目録 중 天文部. “雲が山を覆いました 또는 隠しました”

21) 連語目録 중 人事部. “すぐおいでなさい”

22) “風が吹いて雨が降るから行くのに困ります”

23) 앞서 『單語連語日話朝雋』에서는 『捷解新語』 표기법 계승의 예로 일본어 탁음을 한글로 밝히는데 ‘가가’가, ‘지지’지, ‘부부’부와 같이 한글 자음 ‘ㄴ’, ‘ㄹ’, ‘ㅇ’을 기호처럼 병기하고 있다는 기술을 한바 있다.

24) 출현은 單語目録 단원의 文房部.

관동지역 방언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한일어 문장의 제시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한국어는 띄어쓰기의 반영이 안 되어있는데 반해 한글 음으로 구현한 일본어는 현대 일본어의 형태소 분석 기준 가운데 하나인 장(長)단위로 ‘띄어쓰기(分かち書き)’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적어도 19세기 이전부터 일본어에서는 형태소 단위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양상은 ‘キリシタン資料’ 등에서 서양의 띄어쓰기 체계로 자국어의 음으로써 일본어를 구현하는 경우와는 또 다른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이외에도 가나표기와 장음에 대한 한글 표기 역시 현대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 가운데 일본어 부분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한 예로 ‘撥音(ん)’에 대한 ‘ㄴ’ 규정이나 ‘か행’과 ‘た행’을 ‘가기구게고’ 및 ‘다디두데도’로 표기한 것을 통해 어두의 무성음에 대한 이해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人事部 예문 가운데 “성명이 무엇시오”에 대한 “고세메와 난도 모오시마스가”²⁵⁾에서의 ‘세메’와 政事부에 등장하는 “문명기화가되면아모일도편호고부국되겟소”에서의 ‘문명’을 “분메’와 같이 나타낸 예를 통해 ‘姓名[seimei]’와 ‘文明[bunmei]’의 ‘e+i’ 모음을 ‘e’ 장음으로 반영하고 이를 ‘세에메에’가 아닌 ‘세메’, ‘분메에’가 아닌 ‘분메’와 같이 표기한 것이나 日本國都部 제시 단어 가운데 ‘東京[toukyou]’의 ‘o+u’ 모음 조합을 ‘o’ 장음으로 반영하고 이를 다시 ‘도오교오’가 아닌 ‘도교’와 같이 제시한 것²⁶⁾은 현대 한국어의 일본어 외래어 표기법의 틀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일본어 문자에 대해서도 ‘假名’와 같은 표현대신 ‘일본언문(日本諺文)’과 같이 소개하거나 ‘草花部’, ‘家物部’를 ‘화초부’, ‘가구물부’ 등의 알맞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하는 등 한국인 학습자를 배려하려는 여러 관점을 볼 수 있다.

25) ご姓名は何と申しますか

26) 단, ‘o+u’ 모음 조합에 따른 ‘o’ 장음화는 아직 완전하게 적용되지 않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앞서 예로 들어본 人事部 예문 “성명이 무엇시오”에 대한 “고세메와 난도 모오시마스가”의 ‘모오시(申[moushi])’류의 경우는 ‘모시’와 같은 처리가 되어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4. 『實用韓語學』

『實用韓語學』은 1902년 초판이 간행된 이후 1905년에는 5판까지 간행되었으며 이듬해인 1906년에는 그 내용이 개정, 보강된 7판(개정증보판)이 나올 만큼²⁷⁾ 1900년대의 시작을 함께 한 파급력 있는 한국어 학습서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당시 부산에서 실제로 한국어 교육을 담당했던 저자 島井造의 현장 경험에서 축적된 실용적인 한국어 지식을 쉽고 자세하게 담아내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한국어 동사의 자타 구분에 따른 정리 및 제시와 새로운 명사 목록과 어휘의 등재는 기존의 한국어 학습서와는 차별화된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구성적인 측면에서 ‘初対面’, ‘久瀾’, ‘會飲’, ‘訪問’, ‘船中’, ‘宿室’, ‘人夫’, ‘勉強’, ‘商賣’, ‘四時’와 같은 열 개의 상황 설정을 통해 회화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어서 어법과 문법 해설 및 설명을 실었다. 이에 대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說明第一(흥시다ハ협시다二同シ)

會話第一章ハ未夕免職ナキ二人カ初メテ相遇ヒ互ニ談話スベキ言語ヲ出来得ル丈簡單ニシテ記載セシナリ인스협시다ノ협시다ハ致シマセウト譯スレトモ實ハ御互ニ致シマセウノ意ヲ表ハスモノニテ(중략)故ニ私ハ김가오ト云ヘハ金姓デ스민가오ト云ヘハ閔姓デ스토云フノ類ナリ(會話第一初対面)

이러한 체계는 김정숙(2012:10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법을 고립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언어의 의미나 기능과 연결시켜 제시’²⁸⁾ 오늘날 ‘과제(task) 중심’ 어학 교재 형식의 원형을 볼 수 있는 구성이라고 할 만하다.

27) 이강민 「島井浩와 『實用韓語學』」, 『일본학보』 71輯, 한국일본학회, 2007.4, p.82.

28) 이강민 「島井浩와 『實用韓語學』」, 『일본학보』 71輯, 한국일본학회, 2007.4, p.84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기술이 보인다.

(그림6) 『實用韓語學』의 한글 자모 명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ㅗ	ㅛ	ㅜ	ㅠ	ㅡ	ㅣ	ㅈ
ㅛ	ㅜ	ㅠ	ㅡ	ㅣ	ㅈ	ㅊ
ㅜ	ㅠ	ㅡ	ㅣ	ㅈ	ㅊ	ㅋ
ㅠ	ㅡ	ㅣ	ㅈ	ㅊ	ㅋ	ㆁ
ㅡ	ㅣ	ㅈ	ㅊ	ㅋ	ㆁ	
ㅣ	ㅈ	ㅊ	ㅋ	ㆁ		
ㅈ	ㅊ	ㅋ	ㆁ			
ㅊ	ㅋ	ㆁ				
ㅋ	ㆁ					
ㆁ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ㅗ	ㅛ	ㅜ	ㅠ	ㅡ	ㅣ	ㅈ
ㅛ	ㅜ	ㅠ	ㅡ	ㅣ	ㅈ	ㅊ
ㅜ	ㅠ	ㅡ	ㅣ	ㅈ	ㅊ	ㅋ
ㅠ	ㅡ	ㅣ	ㅈ	ㅊ	ㅋ	ㆁ
ㅡ	ㅣ	ㅈ	ㅊ	ㅋ	ㆁ	
ㅣ	ㅈ	ㅊ	ㅋ	ㆁ		
ㅈ	ㅊ	ㅋ	ㆁ			
ㅊ	ㅋ	ㆁ				
ㅋ	ㆁ					
ㆁ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ㅗ	ㅛ	ㅜ	ㅠ	ㅡ	ㅣ	ㅈ
ㅛ	ㅜ	ㅠ	ㅡ	ㅣ	ㅈ	ㅊ
ㅜ	ㅠ	ㅡ	ㅣ	ㅈ	ㅊ	ㅋ
ㅠ	ㅡ	ㅣ	ㅈ	ㅊ	ㅋ	ㆁ
ㅡ	ㅣ	ㅈ	ㅊ	ㅋ	ㆁ	
ㅣ	ㅈ	ㅊ	ㅋ	ㆁ		
ㅈ	ㅊ	ㅋ	ㆁ			
ㅊ	ㅋ	ㆁ				
ㅋ	ㆁ					
ㆁ						

다만, 本書에서는 한일 양국어의 문법과 어휘 측면에서 적지 않은 과도기적 양상 또한 산견된다. 우선, 한국어의 한글 자모 체계를 들 수 있다. 島井造에 이르러 그동안 寶迫繁勝에 의해 ‘자음’으로 나타내던 한국어의 모음은 ‘모음’으로 제시되어 그 자리를 찾은 것 같아 보이나, ‘모음’으로 명명했던 현대의 ‘자음’은 ‘부음(父音)’으로 명칭이 바뀌어 있다. 또, 諺文에서 ‘부음’을 일본어로 표기하는데 “(父音)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와 같이 위하값이 적지 않은 발음을 적용한 것은 일본어 외래어 표기의 한계를 드러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 거주 한국인 3인의 교열을 받았다고는 하나 한국어에 해당하는 일본어 문장에서 그 표기가 서로 다른 예도 나타나며, 어말어미 ‘-오’에 대한 ‘-才’, ‘-코’의 혼용 양상과 우리말 ‘ㅇ’중성의 일본어식 연구개비음화 표기 양상²⁹⁾

29) ‘장스’에 대한 ‘챱가사’, ‘형제’에 대한 ‘히요그제이’, ‘정말’에 대한 ‘초그말’, ‘노형도놀나 오시오(本書에서는 ‘노형’을 2인칭 지시대명사 ‘アナタ’로 처리하였다)’에 대한 ‘노-히요그드’ 등과 같은 표기의 확인을 통해 오기가 아닌 중성 ‘ㅇ’을 發音인 ‘ㅇ’이 아닌 연구개비음에 가깝게 들리는 발음으로 표기하려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880년 『日韓善隣通話』하권 p.10 第一九章 命令語 井問語 출현 예문 가운데 ‘중발싯거러(茶碗ヲアラへ)’의 ‘중발’에 대한 ‘츄그발’을 통해 1902년에도 보편적인 일본어 발음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본어의 발음 성향이 3절에서 살펴본 1895년 『單語連語日話朝雋』에서는 한글 표기로 구현되어 있는 것이다.

이 보인다. 다만, ‘-오’에 대한 ‘-オ’, ‘-ヲ’의 혼용 양상은 주로 ‘-오’와 ‘-이오’, ‘-시오’류에서 보이는 것으로 당시 한국어 발음체계를 충실하게 반영하려는 하나의 방안으로 짐작된다.

(1) 무슨일노왔노	ムスンイルロワツソ ³⁰⁾ (會話第一 初對面)
(2) 부산사오	プサンサオ (會話第二 久潤)
(3) 인천가오	インチヨンカオ (會話第二 久潤)
(4) 칩을보오	チエクルポオ (會話第二 久潤)
(5) 꼭서른술이오	コクソルンサリーヨ (會話第一 初對面)
(6) 이리오시오	イリオシヨ (會話第二 久潤)
(7) 사양치마시오	サヤグチマシヨ (會話第三 會飲)
(8) 곡식장스호오	コクシクチャグサハオ (會話第一 初對面)

이와 함께 『實用韓語學』에서는 한국어의 이중모음에 대한 분리 표기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강민(2007:89)에서는 이에 대하여 會話第一初對面に 등장하는 ‘젠개말(玄海丸(ゲンカイマル))’을 예로 들어 한국어 이중모음 ‘h’가 아직 단모음화되지 않은 방증임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h’와 같은 ‘y계 활음(glide)’에서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즈제가계시오(御息子ガオラレマスカ)”의 ‘제’와 ‘계’를 각각 ‘ゼイ[zei]’, ‘ケイ[kei]’와 같이 ‘e’ 모음과 ‘i’ 모음으로 분리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어디계시오”에 대한 “オテケ시오”와 같은 표기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단모음화의 과도기적 성향이 반영된 일례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9) 즈제가계시오	チヤゼイカケイシヨ (會話第一初對面)
(10) 어디계시오	オテケ시오 (會話第二久潤)
(11) 오린간만에뵈옵너다	オライカンマノイボイオブヌイダ (會話第二久潤)

이와 함께 『實用韓語學』에서는 이강민(2007:87)에서 살펴본 사항 외에도 아

30) 다만, ‘~왔노’는 특정지역 방언의 구어적 발현이라기보다는 ‘~왔소’에 대한 단순 오기로 보인다.

래와 같이 현대 일본어 문법체계가 모습을 갖추어 가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 (12) 노다가가시오(ノタカカシオ)
遊ダイカレマセ(會話第二久濶)
- (13) 무슨장스키시오(ムスンチャグサハシヨ)
何ノ商売ナサイ마스카(會話第二久濶)
- (14) 얼마주심닛가(オルマチユーシムネツカ)
イクラクダ사리마스카(會話第二久濶)
- (15) 시계를쓴아올너사주시오
トケイヲヒモト共ニ買て下サイマセ(會話第十四時)
- (16) 찬물흐그릇주오(チャンムルハンクルツツウオ)
冷水一杯下サイ(會話第十四時)
- (17) 어디가시오(オテカシヨ)
ドコニ御行キ데스카(會話第四訪問)

우선, 예문 (12)는 ‘撥音便’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용례에 해당한다. 이강민(2007:87)에서는 ‘促音便’에 대한 경향이 관찰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빈번한 출현은 아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한 ‘撥音便’의 확인은 20세기 초 현대 일본어 문법의 확립기에 나타난 혼재(混在)의 일례라고 생각된다.

‘ござる’, ‘なさる’의 連用形 형태 고정과 동사 연용형의 명사화 취급에 따른 ‘です’ 접속 양상도 나타난다. 3절에서 살펴본 『單語連語日話朝雋』에서는 ‘ござる’의 連用形이 ‘ゴサリ’와 같이 나타나고 ‘なさる’의 경우는 ‘ナサレ’ 또는 ‘ナサリ’와 같이 통일되지 않았던 반면, 상기 (13)의 예문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實用韓語學』에서는 동사의 5단 활용에 따른 ‘なさる’의 連用形이 ‘ナサイ’와 와 같이 현대 일본어의 형태로 정착되어 있다. 『單語連語日話朝雋』의 간행이 1895년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적어도 이번 연구에서는 일곱 해 사이에 ‘ござる’와 ‘なさる’의 連用形이 현대 일본어의 표기 형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문 (14)를 통해 ‘くださる’의 連用形은 아직 현대어의 형태로는 정착되지 않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나 (15)와 (16)을 통해 ‘下さい’의 명령형은 ‘クダサレ’의 형태가 없어지고 ‘クダサイ’만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17)은 동사 연용형의 명사 전성과 이에 따른 ‘です’가 접속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예문이다. 단, 이러한 경향은 ‘行く’에서 자주 보이고 모든 동사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동사 연용형의 명사 전성을 정착의 단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용례의 확인을 통해 일반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울러 『單語連語日話朝雋』에서 한국어 문말 표현 ‘-이오’, ‘-소’에 대한 일본어 번역으로 등장하던 ‘-ござる’는 『實用韓語學』에서는 ‘ます’와 ‘です’로 완벽하게 옮겨진 경향도 나타났다. 이는 당시 일본어에서 정중형 어미로서의 ‘ます’와 ‘です’의 위상이 우세해져 가는 모습과 이와 같은 당시의 최신 언어적 경향을 島井浩가 교재에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韓語入門』, 『日韓善隣通話』, 『單語連語日話朝雋』, 『實用韓語學』의 네 가지 한국어 학습서를 중심으로 내용과 문법 항목에 나타난 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문법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으며, 외국어 학습에 문법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금번 고찰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寶迫繁勝는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문법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韓語入門』과 『日韓善隣通話』를 통하여 인구의 문법체계와 일본어 문법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한국어 문법을 체계화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어 학습에 문법을 중요시하는 일본적 전통을 한국어 학습에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日韓善隣通話』는 전통적인 한글 자모 체계와 맞지 않으며, 일본어의 50音圖식으로 한국어 발음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와 함께 방언과 경어에 대한 소개와 나름의 체계화도 보이는데 세 가지 단계로 나눈 한국어의 경어법 가운데 각각의 기준은 上等이 일본어 경어법에서의 ‘尊敬’와 ‘丁寧’, 中等이 ‘謙讓’, 下等이 ‘普通體’ 및 ‘呼び捨て’와 이에 동반한 명령어투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있다.

셋째, 『單語連語日語朝雋』은 한국인 대상 일본어 학습서로서 일본어 언어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적절하게 한국어에 적용, 구현하고 있음에도 문법적인 관점에서의 기술은 많지 않다. 아울러 연구개비음과 비탁음, 모음 겹침 시의 장음화를 한국어로 살리고자 한 면면은 『捷解新語』와 유사하여 한국인 학습자에게 형식적 잉여성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적지 않아 보이며, ‘分かち書き’의 구현과 학습자를 배려한 적절한 우리말 번역, 쉬운 표현의 사용 역시 주목할 만하다.

넷째, 『實用韓語學』은 짧은 시기에 개정증보 7판까지 간행된 것으로 미루어 당시 한국어 학습서로서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本書는 현대 한일 양국어 문법의 초기 확립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특히 현대 일본어 체계에 가까운 제상들의 산견은 1880년 최초의 한국어 학습서와 비교하여 20여년 사이에 일본어 안에서의 문법 및 문체의 동적인 변화가 적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이외는 달리 한국어에서의 특징적인 변화의 경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연구는 각 개별 학습서를 대상으로 하여 편제와 서지 및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그 시기가 길지 않고 살펴본 학습서 역시 많지 않다. 또한, 이로 인하여 한일 양언어의 ‘상호 작용의 규명’보다 그 ‘기술적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편중된 고찰로 마무리되어진 한계가 없지 않다. 아울러 각 저자에 따른 문법 용어 및 제시 방법, 개념 등의 차이 역시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였다. 한국어와 일본어에 나타난 개화기 학습서를 대상으로 한일 양국어의 교섭과 절충이라는 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구 범위에 개화기 전체를 담은 시기적 보강과 학습서 하나하나에 대한 심화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본고의 이와 같은 한계와 문제에 대해서는 금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남옥(2009) 「근대 초기 한국어 교재의 역동적 정착 과정 : 로스(Ross, J.), 호세코(寶迫繁勝), 게일(Gale, J. S.)의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2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pp.193-222.
- 강복수(1979) 『國語文法史研究』, 형설출판사. pp.38-43, 87-91
- 김민수(2008) 「1세기 반에 걸친 韓國文法研究史」, 『歷代韓國文法大系』 제2판 별책, 박이정, pp.8-11.
- 김민수·하동호·고영근(1977-1985) 『歷代韓國文法大系』, 탑출판사.
- 김민수·고영근(2008) 『歷代韓國文法大系』 제2판, 박이정.
- 金鎔均(2011) 「일본어 경어표현 「ござります」에서 「ございます」로의 변화에 관한 고찰」, 『일본학보』 제88집, 한국일본학회, pp.1-15
- 김정숙(2012) 「19세기 말의 한국어 학습서 연구」, 『이중언어학』 49, 이중언어학회, pp.87-109.
- 오대환(2010) 「식민지 시기의 조선어와 일본어의 문법 대조를 통한 조선어교육에 관한 연구-‘조선문조선어강의록’(경성 조선어연구회 간행)의 ‘국선문대역법’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1권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05-128.
- 이강민(2003) 「1893年刊『日韓通話』의 日本語」, 『일본어문학』 제17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p.145-165.
- _____(2004) 「『韓語入門』과 『善隣通語』」, 『일본어문학』 23권, 한국일본어문학회, pp.67-88.
- _____(2007) 「島井浩와 『實用韓語學』」, 『일본학보』 71輯, 한국일본학회, pp.79-91.
- 이한섭(2012) 「근대어 성립에서 번역어의 역할-일본의 사례」, 『새국어생활』 제22권 제1호, p.23.
- _____(2014) 『일본에서 온 우리말 사전』, 고려대학교출판부, p.323.
- 鄭世桓(2010) 「朝鮮語學習書『韓語通』의言語學的一考察：動詞についての記述を中心に」, 『일본근대학연구』 제27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29-58.
- 최영철·허재영(2014) 「근대 계몽기 일본인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학습서의 변화」, 『어문론집』 제57집, 중앙어문학회, pp.453-477.
- 韓榮均(2013) 「宗古聖教会 刊行의 國語史 資料에 대하여」, 『언어사실과 관점』 제32집,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p.2
- 한중선(1994) 「開化期 日本語 學習書 小考」, 『일어일문학연구』 25, 한국일어일문학회, pp.139-168.
- 황호덕(2012) 「개화기 한국의 번역물이 국어에 미친 영향-외국인 선교사들이 본 한국의 근대어」, 『새국어생활』 제22권 제1호, pp.12-14.
- 五十嵐孔一(1999) 「寶迫繁勝(호세코 시게카쓰) : 韓語入門(上·下), 日韓善隣通語(上·下)」, 『형태론』 제1권 2호, 형태론학회, pp.377-385.
- 植田晃次(2011) 「薬師寺知嚙-別府地獄めぐりと朝鮮語をつなぐ人」, 『言語文化研究』 37,

pp.1-19.

齊藤明美(2005) 『『日韓善隣通語』の研究』, 『일본어학연구』 제14집, 한국일본어학회, pp.95-115.

_____ (2006) 『明治時期 日本の 韓語 學習書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24-29.

_____ (2006) 『1909년 刊 『韓語通』의 일본어와 한국어』, 『인문학연구』 12권,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pp.173-197.

木之下正雄・上村孝二・古田東朔(1959) 『国語概説』, くろしお出版, pp.32-36.

山田寛人(2004) 『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語奨励政策-朝鮮語を学んだ日本人-』, 不二出版, pp.86-93

<http://www.ndl.go.jp/>(검색일 : 2014.12.08.)

<http://dl.ndl.go.jp/>(검색일 : 2014.12.11.)

- ❖ 투고일 : 2014.12.27
- ❖ 심사완료일 : 2015.02.03
- ❖ 게재확정일 : 2015.02.09

Abstract

개화기 한일 양국어 학습서의 특징 연구

-문법 관련 기술 양상을 중심으로-

윤영민

본 연구는 일본인 및 한국인 일본인 공저에 의해 저술된 한일 양국어 학습서를 대상으로 그 편제와 구성 및 내용의 분석을 통해 당시 한국어와 일본어의 문법과 그 체계가 어떠한 양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 19세기 말 갑오개혁을 전후한 개화기 이전과 이후부터 20세기 초 전기(前記) 현대 한국어로 진입하는 시기까지의 한국어 문법 체계와 당시 일본어 문법의 경향을 함께 살펴보는 동시에 일본어 문법의 영향이 한국어에 어떻게 반영, 투영되었는지 알아봄으로써 근현대 한일어의 교섭과 접촉의 일면을 밝히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寶迫繁勝는 『韓語入門』과 『日韓善隣通話』를 통해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문법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인국어의 문법체계와 일본어 문법 용어의 병용(並用)을 통해 한국어 문법을 체계화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日韓善隣通話』는 전통적인 한글 자모 체계와 맞지 않으며, 일본어의 '50音圖' 식으로 한국어 발음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와 함께 방언과 경어에 대한 소개와 나뉠의 체계화도 보이고 있다.

셋째, 『單語連語日語朝雋』은 한국인 대상 일본어 학습서로서 문법적인 관점에서의 기술은 많지 않지만, 일본어 언어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적절하게 한국어에 적용하고 구현하였다. 『捷解新語』와 유사한 형식적 잉여성과 띄어쓰기, 적절한 번역과 쉬운 표현의 사용도 주목할 만하다.

넷째, 『實用韓語學』은 현대 한일 양국어 문법의 초기 확립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1880년 최초의 한국어 학습서와 비교하여 20여년 사이에 일본어 안에서의 문법 및 문체 변화에 나타난 과도기적 성향이 적지 않게 반영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Key Words : 개화기, 한국어 학습서, 일본어 학습서, 문법 양상, 한일 양국어 교섭

Abstract

A Study on the Study Books for Foreign-language Learners
in Korea and Japan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Focus on the grammatical aspect-

Yun, Young-min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based on Korean and Japanese study books for the Japanese language (includes co-authors of the Korean and Japanese). By studying the organization, composition, and content of said materials, the aim is to examine the aspects in which the grammar and systems of the Korean and Japanese languages took influences from each other at the time.

By researching materials from the Korean Enlightenment, which took place from before until after the late-19th-century Gabo Reform, to the early 20th century and all the way up to the formation of modern Korean, the study focuses on the Korean grammar system and the aspects of Japanese grammar of the time and tries to decipher how the influence of Japanese grammar is reflected in the Korean language. By doing so, the study attempts to shed light on how the connection and contact between modern-age Korean and Japanese work toda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

First, through 『韓語入門』 and 『日韓善隣通話』, seems to have a tendency to emphasize grammar in Korean learning. This kind of tendency seems to have been brought about because of efforts to systemize Korean grammar through a combination of the Indo-European grammar system and Japanese grammar terminology.

Secondly, 『日韓善隣通話』 does not correctly present the traditional Hangeul alphabet system but instead presents Korean pronunciation using the Japanese '50音図' method. In addition to this, the text has its own way of systemizing dialects and honorifics when introducing them in the text.

Thirdly, as a study material of Japanese for Koreans, 『單語連語日話朝雋』

does not offer much from a grammatical aspect, but instead through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the Japanese language system it helps the reader to apply and realize the language through Korean. Similarities with the formality redundancy and spacing as well as use of appropriate translations and easy-to-understand expressions as in 『捷解新語』 are also worthy of note.

Fourthly, 『實用韓語學』 can provide us with observations of different aspects from the early period of the establishment of modern Japanese and Korean grammar. It compares the first Korean study materials from 1880, and one can get the idea, however slight, that the transitional inclination that is reflected in the changes in Japanese grammar and writing style in 20 years was significant.

Key Words : Enlightenment period, Korean study book, Japanese study book, grammar, Connection of Korean and Japanese